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은행
동양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광주 -1/3℃ 목포 0/3℃ 여수 4/6℃

단기 4342년 (음력 10월 29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18549호 1판 2009년 12월 15일 화요일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양형일·이용섭·전갑길·정동채·정찬용씨

민주 광주시장 후보 단일화 움직임

당내 경선 박광태·강운태·단일후보 3각구도

내년초로 예정된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현재까지 상대적으로 지지도가 낮은 후보군이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 후보로 꼽히고 있는 이용섭 의원과 양형일 전 의원, 정동채 전 장관, 전갑길 광산구청장,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은 개혁 진영의 후보 단일화를 이루자는데 공감을 나타냈다. 〈관련기사 5면〉

우선 지난 13일 광주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민주혁신세력의 후보 통합을 주장, 후보 단일화 논의에 불을 붙인 이용섭 의원은 "민주개혁 세력의 분열로 낡은 인물이 광주시장에 당선된다면 이는 광주시의 미래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번 선거는 구시대 후보군과 혁신 후보군의 대결 구도로 형성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후보단일화 시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며 "개혁 및 혁신 진영 입지자들이 마음을 터놓고 광주의 미래를 위해 고민하고 결단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는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광주시장 출마 선언에 나서는 양형일 전 의원도 "개혁진영 후보 단일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명제이며 광주의 미래를 위해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며 "광주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마음을 열고 진지하게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4일 광주시장 출마 선언을 마친 정동채 전 장관은 "후보 단일화 논의는 광주의 미래를 위해 검토해야 한다"며 "개혁 및 혁신 진영 후보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하며 추후 토론회 등을 통해 검증의 과정 등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은 "참으로 올바른 문제 제기이며 진심으로 공감한다"며 "특히, 광주의 미래를 위해서는 절실하게 필요한 사항이다"고 후보 단일화 논의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오는 21일 자서전 출판기념회를 계기로 본격적인 시장 경선 행보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는 전갑길 광산구청장도 "후보 단일화는 상당히 의미있는 제안이며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현직 단체장이라는 점에서 말을 아꼈다.

조영택 의원은 "특정인을 겨냥한 인위적인 후보 단일화에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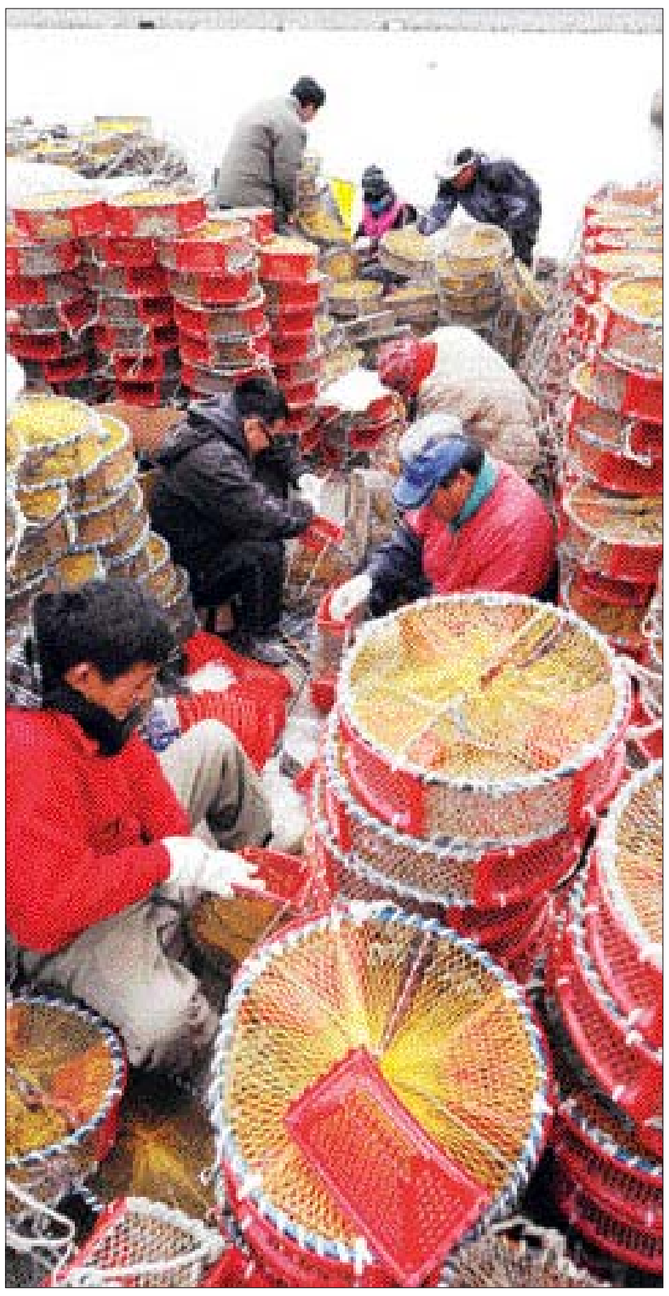
단일화에 공감하는 후보군은 성사 전까지 자신의 지지도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여 경선전이 후끈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후보 단일화 논의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현재 박광태 광주시장과 강운태 의원이 형성하고 있는 '2강 구도'를 흔들고자 하는 배경이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반영하듯 박광태 광주시장과 강운태 의원 측에서는 후보 단일화 논의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 별다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주자들의 인지도 상승을 염두에 둔 자구책에 불과하다며 일축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 입지자들의 후보 단일화는 내년 초부터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 당장 정치권 일각에서는 일부 광주시장 입지자들이 후보 단일화 문제와 관련, 조만간 회동을 가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겨울낙지 통발 손질 본격적인 낙지잡이철을 맞아 14일 장흥군 안양면 수문리 바닷가에서 주민들이 출어에 앞서 낙지통발을 손질하고 있다. 통발은 미끼를 넣어 낙지, 꽃게, 붕장어 등을 유인해 잡는 어구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2009년 빛낸 스포츠 선수

김연아 1위 신지애 6위

〈김연아〉

〈신지애〉

'피겨여신' 김연아(19·고려대)가 '2009년을 빛낸 스포츠 선수' 설문에서 3년 연속 1위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함평골프고 출신으로 올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상금왕·신인왕·다승왕 등 3관왕을 휩쓴 신지애(21·미래에셋)가 6위에 올랐다.

한국갤럽은 지난달 12일부터 30일까지 남녀 1천7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개별 면접조사(표본오차 ±2.4%, 신뢰수준 95%)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김연아가 82.8%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다. 프리미어리그 맨유에서 활약하고 있는 박지성이 40.7%로 2위를 기록했고, 지난해 2위였던 수영스타 박태환(20·단국대)이 3위로 떨어졌다.

미국프로야구 추신수(27·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4위에 올랐고 신지애는 6.4%로 6위에 이름을 올렸다.

/서승원기자 swseo@

5·18 30주년 국민 통합행사로

서울·강원 등 전국서 참여…정부, 5·18단체 통합도 추진

정부는 30주년을 맞는 내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영·호남주민은 물론 서울·충청·강원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범국민 통합행사로 치르기로 했다.

또 정부는 기념사업 등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30주년을 계기로 부상자회·유족회·구속부상자회로 나눠진 5·18 민주화 운동 관련 3개 단체의 통합을 추진하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국가보훈처는 14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서민·고용분야 2010년 합동 업무보고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보훈처는 민주·정의·인권 존중의 숭고한 5·18 정신을 기리고 계승한다는 차원에서 내년 5월18일 오전 10시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리는 30주년 정부 기념식을 5·18 민주유공자·유족, 학생, 국회의원, 정부인사 외에 전국의 주민이 모이는 대규모 행사로 치르기로 했다.

보훈처는 또 기념공연과 추모의 나비 날리기 등 식전·후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한편 순회사진전, 전국 고교 학생회장 수련회, 전국 소년·소녀 광주 소풍 등 다양한 국민 참여 행사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훈처는 내년에 4·19 혁명 50주년을 맞아 국가 선진화를 위한 국민화합의 계기로 삼기 위해 4·19 혁명에 직접 참가한 사회원로를 중심으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하고 기념식 외에 기념공연과 특별 전시회 등을 개최하기로 했다.

보훈처는 나아가 4·19 혁명 참가자를 추가 발굴, 포상하는 한편 4·19 민주묘지 내의 전시·교육관에 4·19 혁명기념관을 재개관하고 청소년 교육, 국제학술회의, 4·19 혁명 발발지 순례, 시민 대축제 등 교훈을 되새기는 다양한 계기 행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사)5·18 민주유공자 유족회 허연식 전 사무처장은 "국가보훈처가 직접 나서 5·18 민중항쟁 30주년 기념행사를 국민통합 행사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적은 이번이 처음으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특히 "2010년도 업무보고에 5월 관련단체 통합 추진 문제가 포함된 점은 매우 반길만한 내용"이라며 "30주년 기념행사를 계기로 5월 관련단체가 통합, 기념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의 실질적인 노력이 뒤따랐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국내 첫 신종플루 감염 돼지

경기·경북 양돈농가 5곳서 발생

국내에서도 신종 인플루엔자A(H1/N1·신종플루)에 감염된 돼지가 나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4일 "경기와 경북의 양돈 농가 5곳에서 신종플루에 감염된 돼지가 발견돼 이동 제한과 격리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사람이 아닌 돼지가 신종플루에 걸린 사례가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해외의 경우 캐나다, 영국, 호주 등 14개국에서 신종플루에 걸린 돼지가 나왔다.

이번에 신종플루 감염 돼지가 나온 농장은 경기 양주의 양돈 농장 1곳, 경북 김천 2곳, 경북 군위 2곳 등이다. 이들 5개 농장에서 사육되는 돼지는 모두 3천600여마리 규모다.

또 지난달 22일 수입된 캐나다산(産) 종돈(씨돼지) 90마리 중 6마리도 신종플루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이날 양돈협회 및 대학교수,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가축방역협의회를 열었으나 이들 감염 돼지에 대해 살(殺)처분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다. /연합뉴스